

“비구니스님 손길 간절해요”

이주여성 지원 해뜨는다문화센터의 두 스님



광주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장 정선 스님(왼쪽)과 총괄국장 동원 스님이 활짝 웃고 있다.

“다문화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비구니스님들의 동참이 간절합니다.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은 이주여성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광주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장 정선 스님과 총괄국장 동원 스님은 이주민들이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은 것이 안타깝다. “이들은 가정에서 폭력과 친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잘 못하고 한국 생활이 낯서니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빨리 습득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는 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주여성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섬세한 배려,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센터에서는 이번 겨울 ‘약기와

동요가 함께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음악과 어울리면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현장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는 조선대병원과 이웃한 대광사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2009년 4월 문을 열었으니 1년이 조금 넘었다. 센터에는 생기가 돈다. 임대한 2개 층에는 놀이방과 공부방, 식당 등이 갖춰져 있다. 시설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이곳에서는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가을나들이, 감정치유, 다문화가족 큰잔치, 빛고를 사랑 운동, 전통악기 배우기, 일지리장출, 한국요리수업, 생활상담 등 많은 활동이 진행된다.

지난 10월은 센터 소속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경연대회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출전한 전통악기팀은 가야금과 해금을 연주했다. 또 다문화가족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태극·베트남 여성들은 전통춤을 선보였다. 경연대회는 아리랑TV를 통해 180여 나라에 방송됐다. 1년 남짓한 새내기 팀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었다.

가족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전통악기 연주이다. 정선 스님과 동원 스님은 “다문화가족들과 전통 음악으로 소통하면 더욱 좋아요”라며 전통음악을 활용한 활동을 적극 추천했다.

몇 해 전 정선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대광사에 조선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과 이주여성들이 방문했다. 스님은 가난한 유학생들의 힘든 점을 알게 됐고, 그냥 두고만 있을 수 없었던 스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주민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정선 스님은 이들을 더욱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있다. 동원 스님도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했다.

두 스님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운영이 쉽지만은 않다. “재정문제가 어려우십니다. 이주민 엄마와 아이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스님은 이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상담학을 따로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기관에서도 이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집행과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나눌수록 더해지는 HAPPY’

2010 서원한마당

금산사복지원이 위탁 운영하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원행, 금산사 주지)은 11월 18~19일 서원복지관에서 지역주민, 어르신, 후원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10 서원한마당’을 개최한다.

18일은 어르신 작품, 아이들이 바라본 할아버지·할머니 그림 전시, 샌드아트, 어울림한마당, 장기자랑대회가 열린다. 19일에는 북

지관, 경로당, 서원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이 갖고 닦은 작품발표회와 함께 바자회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원행 스님은 “작품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성을 이해는 장이자,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한 어르신들의 아람자리를 펼쳐 보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복지관은 작년에 이어 소외계층 어르신을 돕기 위한 기부마련바자회가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한자 캐주얼을 위한 작은 음악회

부산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1월 17일 동의의료원 강당에서 한자캐주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함께 나누는 시간, 사랑의 차와 떡 나누기에 이어 성우원 합주부, 불자성악가회, 예림 어린이 병창단, 음악세상의 음악공연이 진행됐다.

원범 스님은 “투병생활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우리 사회의 온기 넘치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해, 임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선사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백양사 단풍축제 ‘추야몽’

전남 장성 고티촌 백양사(주지 시몽)는 11월 6~7일 백암산 백양사 단풍축제 ‘쌍계루의 추야몽’을 개최했다.

가을단풍이 한창인 백양사 단풍축제 및 산사음악회에는 등산객과 신도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호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6일 수석박물관



백양사는 11월 6~7일 단풍축제 ‘쌍계루의 추야몽’을 열었다. 어린이들의 문화공연 모습.

에서 네일클로버 300만 원 전시와 한국불교 미술사를 알 수 있는 전시회, 수석으로 만나는 부처, 달마, 아한상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이어 야단법석에는 조계종 前 교육원장 안도 스님의 ‘맛있게 잘 사는 길’이라는 법문과 순천 대승사 ‘아하 풍물단 문화공연 등 이어졌다.

7일에는 인기 가수 박현빈, 도신 스님과 색즉시공, 현진우, 정정아, 퓨전국악 아이리아의 공연이 이어졌다.

시몽 스님은 “백암산 백학봉과 어울리는 백양사는 최고의 관광지이다”며 “관광과 함께 마음을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행사와 별도로 쌍계루 주변에서는 불교계 구호단체 JTS 북녘 돕기 캠페인과, 단주 만들기 체험, 페이스 페인팅, 솜사탕 만들기 등이 함께 진행돼 단풍철을 맞아 사랑을 찾는 이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네팔 만다라전

네팔 만다라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11월 25일까지 전남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보제루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극락정토로 가는 영혼의 수레바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만다라 작품 및 불상을 통해 네팔 불교의 특색 있는 종교관을 엿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네팔 최고작가로 꼽히는 노루브라라 등이 그린 칼라차크라 만다라 35점과 네팔 장인들이 손으로 제작한 불상 30여점이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가을 50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왔고, 그 수익금의 일부로 네팔 난민촌 초등학교에 컴퓨터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참불자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통도사에서 수계

부산불교봉사연합회와 부산시 지체 장애인협회는 11월 7일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에서 ‘제2회 휠체어 장애인 산사 수계대법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을 위한 수계법회에는 부산·양산 휠체어 장애인 및 가족, 봉사회원, 신도, 학생자원봉사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사단은 휠체어를 탄 60여 장애인들이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또 통도사는 장애인들을 위해 법당까지 마당에서 법당까지 나무 다리를 임시로 설치해 편의를 제공했다.

정우 스님은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장애인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탁상에서 법문을 했다. 또 스님은 “앞으로 통도사는 장애인들이

통도사 경내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신설되는 건물에는 문턱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수계식을 통해 참 불자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다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j9818kr@yahoo.co.kr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11월 7일 양산 통도사에서 수계를 받고 있다.

광주博,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도갑사 성보박물관 체험행사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 마지막 코스로 불교 성보박물관을 관람한다.

가족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은 11월 27일 도갑사 성보박물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도기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도갑사 성보박물관에는 국보 제50호 해탈문과 국보 제144호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89호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134호 문수·보현보살·코끼리 대형석조상, 도선수미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조각, 회화, 공예, 서지, 전적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김세롬 씨는 “사찰 성보박물관은 자연 속에서 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탐방은 전문 큐레이터의 해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가족문화탐방 프로그램이다.

접수는 11월 11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선착순 40명. (062) 570-705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인기’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와 본지가 함께 진행 중인 빛고을아카데미 경진경과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월 27일부터 광주 KT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강좌는 약 600여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5년 동안 강좌에 참여한 이미령(51, 여)씨는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됐다. 특히 큰 스님들의 법문을 광주에서 직접 만나게 돼 너무 기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 강좌는 지안 스님(금강경) 각목 스님(아함경) 통광 스님(유마경) 도법 스님(화엄경) 무비 스님(법화경) 강의로 각 경전에 대한 이해와 경전이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 등에 대한 강의를 이뤄지고 있다.

성오 스님은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통해 광주불교가 한 단계 발전해 나아가며, 사부대중 공동의 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062) 376-32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길상사 삼계선원

개원 2주년 기념 법회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주지 만제) 개원 2주년 기념 법회가 11월 6일 봉행됐다.

법회에서는 상단 후불명화 점안식과 더불어 땅 한 평 사기 300일 기도 입제식이 함께 봉행됐다.

길상사는 경남 김해 신도시인 삼계동의 도심 포교당으로, 2008년 처음 선원 문을 연 후로 불교대학 개설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체험 행사,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 등을 펼치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그 신비한 힘을!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조상이 저승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승에서 자손들도 정리정돈이 안되며 발복이 안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병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제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져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 성공 하는 것입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병기,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져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이 도자기를 쳐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인 운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운이 세고 돈의 흐름이 막히며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로 운기가 회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동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치우천왕 검색

신비한 힘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터지는 치우천왕 조상천도 도자기 출현

“치우천왕 기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가격 : 250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치우천왕 도자기는 상품번호 제 40-0812033호 이므로 무단 복제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

황금의 불탑 미얀마!!!

미얀마를 알고 계십니까?

걱정 마세요. 미얀마 성지순례는 안전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성지순례!!!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베트]